

# 建窯“供御”·“進琰”銘黑釉碗의 제작시기 문제

이희관(李喜寬)

## I. 머리말

## II. “供御”·“進琰”銘黑釉碗의 제작시기에 대한 여러 견해

## III. “供御”·“進琰”銘黑釉碗의 器形的 특징

## IV. “供御”銘黑釉碗과 “進琰”銘黑釉碗의 시기적 선후관계 문제

## V. “供御”·“進琰”銘黑釉碗의 제작시기에 대한 탐색

## VI. 나머지말—남아 있는 몇 가지 과제

---

獨立學者

주요 논저:

『皇帝와 瓷器—宋代官窯研究』(경인문화사, 2016), 「建窯의 “供御”·“進琰”銘黑釉碗에 대한 기초적 검토」, 『야외고고학』 36(2019), 「建窯의 “新窯”銘黑釉碗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야외고고학』 40(2021) 등

이 연구는 건요의 “공어”·“진잔”명흑유완과 관련된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인 그 제작시기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필자는 주로 器形的 측면에서 “공어”·“진잔”명흑유완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한 후,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그것이 같은 유형의 건요 흑유완의 전개과정에서 시간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추적함으로써, 이 문제를 밝히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달한 대략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건요에서는 다양한 기형의 흑유완을 제작하였지만, “공어”명이나 “진잔”명은 거의 다 특정한 유형의 완, 즉 I 형 束口碗이나 II 형 撇口碗에서만 확인된다. 이 가운데에서도 전자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 “공어”명이나 “진잔”명이 있는 I 형 흑유속구완의 경우, 모두 口部가 짧게 外反되었으며, 측사면의 경사각은 대략 50° 전후이다. 구연으로부터 0.3~0.5cm가량 아래에 束口가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것들은 건요의 I 형 흑유속구완들 가운데에서는 비교적 운두가 낮은 편이어서, 그 높이/구경의 값이 0.5 이하이다. “공어”명흑유완과 “진잔”명흑유완 사이에 기형적인 측면에서의 차이는 거의 없다. 다만 양자의 출토상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전자가 제작시기에 있어서 후자보다 앞서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공어”·“진잔”명이 있는 I 형 흑유속구완과 같은 기형적 특징을 가진 건요 흑유완은 같은 유형의 전형적인 건요 흑유속구완이 출토되는 12세기 말기~13세기 초기의 紀年墓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일본의 하카타유지(博多遺址)의 경우, 그러한 기형적 특징을 가진 흑유완들은 전형적인 건요 흑유속구완들이 출토되는 12세기 후기~13세기 전기의 유지보다 이른 12세기 전기의 유지에서 출토된다. 복건지방의 흑유완이 거의 시간적 격차 없이 하카타에 유입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공어”·“진잔”명의 I 형 흑유속구완의 제작시기가 12세기 전기를 벗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요컨대, “공어”·“진잔”명흑유완은 12세기 전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建窯, “供御”·“進饒”銘黑釉碗, 제작시기, 黑釉束口碗, 蘆花坪遺址, 하카타유지(博多遺址)

# 建窯“供御”·“進賤”銘黑釉碗의 제작시기 문제 \*

이희관(李喜寬)  
독립학자

## I. 머리말

송대에 저술된 茶에 관한 대표적인 저술인 蔡襄의 『茶錄』이나 徽宗의 『大觀茶論』에서는 하나같이 點茶에는 兔毫紋이 있는 黑釉碗이 가장 적합하다고 하였다.<sup>1</sup> 그러한 흑유완을 생산한 대표적인 요장이 建窯라는 것은 다 아는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송대에 건요의 흑유완이 供御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供御”·“進賤”銘黑釉碗이 바로 그 물적 증거이다(도1).



도 1-①. “供御”銘黑釉碗, 南平市建陽區博物館



도 1-②. 도 1-①의 背面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7087661)

1 [宋]蔡襄 撰, 『茶錄』 下篇 論茶器 茶盞, 『中國古代茶書集成』(上海: 上海文化出版社, 2010), p.102; [宋]徽宗 撰, 『大觀茶論』 盞, 『中國古代茶書集成』(上海: 上海文化出版社, 2010), p.126.

“공어”·“진잔”명흑유완은 淸末~民國時期에 그 존재가 알려지고,<sup>2</sup> 그 후 적지 않은 실물자료가 수습·출토되었다. 그렇지만 “공어”·“진잔”명흑유완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다. 예컨대, “공어”·“진잔”명흑유완의 기형적 특징에 대해서도 이것들이 束口碗이라는 주장을 제외하면 별다른 깊이 있는 연구를 찾기 힘들다. 그것들의 제작시기나 생산 및 공급 체제에 대한 연구도 그러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공어”·“진잔”명흑유완에 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전주어 매우 부진하다는 평가를 면하기 힘든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공어”·“진잔”명흑유완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 가운데 각별히 그 제작시기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 과제는 단지 건요에서 어느 시기에 송의 황실에 흑유완을 공어했는지를 밝히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이것은 건요 흑유완의 조형적 변천과정을 포함한 건요의 전개과정 등을 규명하는 데에도 매우 긴요하다.

필자는 “공어”·“진잔”명흑유완의 제작시기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로부터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논의를 시작하려고 하는 까닭은 이 과정에서 “공어”·“진잔”명흑유완의 제작시기에 대한 해명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다음으로 “공어”명흑유완과 “진잔”명흑유완의 기형적 특징과 양자의 시기적 선후관계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의 결과를 기반으로 “공어”·“진잔”명흑유완의 제작시기를 탐색하려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건요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고 풍부해지기를 기대한다.

## Ⅱ. “供御”·“進賚”銘黑釉碗의 제작시기에 대한 여러 견해

“공어”나 “진잔”명흑유완의 제작시기에 관하여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淸末의 寂園叟일 것이다. 다음은 그가 저술한 『匋雅』에 보이는 내용이다.

(A) 兔毫琖, 卽鷓鴣斑. 第鷓鴣斑痕寬, 兔毫針瘦, 亦微有不同. 或稱近有閩人掘地所得古琖頗多, 質厚色紫黑……證以蔡襄『茶錄』, 其爲宋器無疑. 曰甌寧產, 曰建安所造, 皆閩窯也. 底上偶刻有陰文“供御”楷書二字.<sup>3</sup>

적원수는 이 대목에서 兔毫盞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토호잔이 우리가 흔히 建盞으로 부르는 건요 흑유완 가운데 대표적인 존재라는 것은 다 아는 일이다. 그는 이 토호잔이 송대의 기물이 분명하

2 [淸]寂園叟 撰, 『匋雅』 卷下, 書貴山房重刊本, 『中國陶瓷名著匯編』(北京: 中國書店, 1991), p.128; [民國]詹宣猷 等 撰, 『建甌縣志』 卷22 金石, 民國十八年本(臺北: 成文出版社, 1967), p.272 참조.

3 [淸]寂園叟 撰, 앞의 책(1991), p.128.

다고 하였는데, 그 근거로 蔡襄의 『茶錄』을 들었다. 『다록』에는 토호잔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B) 茶色白, 宜黑盞, 建安所造者, 紺黑, 紋如兔毫, 其坯微厚, 焙之久熱難冷, 最爲要用. 出他處者, 或薄, 或色紫, 皆不及也. 其青白盞, 鬪試家自不用.<sup>4</sup>

채양은 建安에서 만든 토호잔, 즉 건요의 토호잔이 차를 마시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하였다. 적원수는 송대의 사람인 채양이 그렇게 언급하였으므로 토호잔을 송대의 기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토호잔의 저부에 “공어”를刻한 것이 있으므로, 결국 적원수는 문제의 “공어”명흑유완의 제작시기를 송대로 파악한 셈이 된다. 그는 “진잔”명흑유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것의 존재를 아직 몰랐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공어”나 “진잔”명흑유완이 송대에 제작되었다는 인식은 民國時期에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民國 18년(1929)에 편찬된 『建甌縣志』에 당시 “공어”·“진잔”명흑유완을 포함한 건요의 흑유완(토호잔)을 “宋碗”으로 俗稱하였다고 한 내용이 이를 증명한다.<sup>5</sup>

한편, 신중국 성립 이후 馮先銘은 “공어”·“진잔”명흑유완의 제작시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다.<sup>6</sup> 그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각별히 주목한 것은 『宣和遺事』에 보이는 다음 기록이다.

(C) 政和二年……又以惠山泉·建溪異毫盞, 烹新貢太平嘉瑞茶, 賜蔡京飲之.<sup>7</sup>

위 기록은 政和 2년(1112)에 徽宗이 蔡京을 대궐로 불러 太清樓에서 베푼 연회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이때 휘종은 “建溪異毫盞”에 차를 타서 채경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는데, 풍선명은 異毫盞을 건요 토호잔의 별칭으로 이해하고, 이 기록 등을 토대로 “공어”·“진잔”명흑유완이 전적으로 북송의 궁정에 공어하기 위해 소성한 茶碗이라고 주장하였다. “공어”·“진잔”명흑유완의 제작시기를 북송으로 파악한 것이다. 그는 이후 자신의 견해를 더욱 구체화시켜, “공어”·“진잔”명흑유완이 북송 후기에 鬪茶用으로 공어된 다완이라고 주장하였다.<sup>8</sup> 여기에서도 사료(C)를 핵심적인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4 [宋]蔡襄撰, 앞의 책(2010), p.102.

5 [民國]詹宣猷等撰, 앞의 책(1967), p.272.

6 馮先銘, 「從文獻看唐宋以來飲茶風向及陶瓷茶具的演變」, 『文物』1(1963), pp.10-11; 「新中國陶瓷考古的主要收穫」, 『文物』9(1965), p.39.

7 [宋 혹은 元]佚名撰, 『宣和遺事』前集, 上海中華書局據宋禮居刻本校刊本, 『四部備要』제45책(北京: 中華書局, 1989), p.10.

8 馮先銘, 「宋代黑釉瓷器」, 『馮先銘中國古陶瓷論文集』(香港: 紫禁城出版社·兩木出版社, 1987), p.13.

『선화유사』는 송·원대에 크게 유행한 講史書類의 話本(白話小說)으로서,<sup>9</sup> 그 저술시기는 송대가 아니라 그보다 늦은 원대일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sup>10</sup> 그리고 강사서나 화본에는 가공적인 내용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sup>11</sup>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풍선명의 견해는 사료적 가치의 측면에서 의문이 있는 기록을 주요 토대로 하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게다가 사료(C)는 정화 2년이라는 북송 말기의 특정한 시점에 어전에서 차를 내릴 때 건요의 토호잔을 사용했다는 내용을 전할 뿐이다. 설사, 이 기록의 사료적 가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을 토대로 “공어”·“진잔”명흑유완을 제작·공여한 시기를 북송 후기로 한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공어”·“진잔”명흑유완의 제작시기와 관련하여 문제의 『선화유사』에 보이는 기록[사료(C)]을 크게 주목한 또 다른 연구자는 顧文璧이다.<sup>12</sup> 그는 사료(C)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기록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 『皇朝編年綱目備要』와 『太清樓特燕記』에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宣和遺事』의 해당 대목은 『皇朝編年綱目備要』에서, 『皇朝編年綱目備要』의 해당 대목은 『太清樓特燕記』에서 채록한 것임을 밝혔다. 즉 「태정루특연기」가 이 기록의 來源인 셈이다.

(D) 祐陵癸巳(壬辰의 誤)歲, 蔡元長(蔡京)自錢塘越召, 再拜詔, 特錫(賜의 誤)燕於太清樓, 極承平一時之盛, 元長作記以進云, 政和二年……又取惠山泉·建溪毫朶, 烹新貢太平嘉瑞園茶飲之.<sup>13</sup>

「태정루특연기」는 정화 2년에 휘종이 베푼 연회에 직접 참가한 蔡京이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궁중에서 건요에서 공여한 흑유완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고문벽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북송의 蘇軾이 지은 詩 「次韻蔣穎叔·錢穆父從駕景靈宮」[사료(E)]과 남송의 程大昌이 찬한 「演繁露」에 보이는 기록[사료(F)]을 토대로 “공어”·“진잔”명흑유완의 제작시기를 더욱 구체적으로 추적하였다.

(E) 病貪賜茗浮銅葉, 老怯香泉灑寶樽.<sup>14</sup>

(F) 『東坡後集』二「從駕景靈宮詩」云, 病貪賜茗浮銅葉. 按, 今御前賜茶, 皆不用建盞, 用大湯盞, 色正白, 但其制樣似銅葉湯盞也. 銅葉色黃褐色也.<sup>15</sup>

9 羅筱玉, 『宋元講史話本研究』復旦大學 博士學位論文, 2005, pp.76-79.

10 『선화유사』의 저술시기에 대한 여러 견해에 대해서는 羅筱玉, 앞의 책(2005), pp.71-76 참조.

11 [宋]耐得翁撰, 『都城紀勝』瓦舍衆伎, 『叢書集成續編』제52책(上海: 上海書店出版社, 1994), p.288 참조.

12 顧文璧, 「建窯“供御”、“進殘”的年代」《宣和遺事》“建溪異毫朶”正誤, 『東南文化』1(1986), pp.133-138 및 p.81.

13 [宋]王明清撰, 『揮塵餘話』卷1, 文淵閣四庫全書本, 『景印文淵閣四庫全書』제1038책(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6), pp.572-574.

14 [宋]蘇軾撰, 『東坡全集』卷20「次韻蔣穎叔·錢穆父從駕景靈宮」, 文淵閣四庫全書本, 『景印文淵閣四庫全書』제1107책(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6), p.309.

15 [宋]程大昌撰, 『演繁露』卷11 銅葉盞, 文淵閣四庫全書本, 『景印文淵閣四庫全書』제852책(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6), p.166.



「次韻蔣穎叔·錢穆父從駕景靈宮」은 元祐 7년(1092)에 哲宗이 경령궁에서 蘇軾·蔣之奇·錢總에게 차를 내릴 때의 情景을 읊은 시이다. 이 시는 두 首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료(E)는 그 가운데 한 수의 한 구절이다. 이 시에서 소식은 이때의 御前賜茶에 사용된 茶器를 “銅葉”라고 하였는데, 고문벽은 그것을 잎사귀 모양의 銅盞을 가리키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철종 대에는 御前에서 아직 건요의 토호잔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앞서 인용한 「태청루특연기」[사료(D)]를 주요 근거로 “공어”·“진잔”명흑유완은 휘종대에 접어들어서야 제작되기 시작하였을 것으로 파악한다.

더 나아가 고문벽은 사료(F)의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공어”·“진잔”명흑유완의 공어가 끝난 시점을 추론하였다. 사료(F)는 앞서 설명한 소식의 시 「次韻蔣穎叔·錢穆父從駕景靈宮」의 한 구절에 대하여 정대창이 註釋을 한 것이다. 여기에서 그는 “지금(今)”은 어전에서 차를 내릴 때 建盞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이전의 언제까지는 건잔을 사용하였다는 이야기이다. 정대창은 선화 5년(1123)에 태어나 紹興 21년(1151)에 進士가 된 후 내외의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慶元 元年(1195)에卒하였다.<sup>16</sup> 사료(F)가 실려 있는 『演繁露』는 그가 泉州의 知州事로 있던 淳熙 8년(1181)에 간행되었다.<sup>17</sup> 고문벽은 정대창이 乾道 6년(1170)에 중앙을 떠나 죽을 때까지 줄곧 외관직만 역임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문제의 “지금”의 시점의 상한은 1170년으로, 하한은 1181년으로 파악하였다. 그는 이러한 토대 위에서 건요에서 “공어”·“진잔”명흑유완을 공어하던 전성기가 휘종이 재경에게 건요 토호잔으로 차를 내린 정화 2년(1112)에서 정대창이 중앙을 떠난 건도 6년(1170)까지라고 주장하였다.

고문벽은 『선화일사』에 보이는 정화 2년의 御前賜茶와 관련된 기록[사료(C)]의 來源을 밝히고 아울러 그 사료적 가치를 입증하였다. 그리고 건요 흑유완의 供御時期를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또 다른 기록[사료(F)]을 발굴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공어”·“진잔”명흑유완의 제작시기를 밝히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된다. 다만 이 기록들은 모두 어전사차에 사용된 건요 흑유완과 관련된 것이다. “공어”·“진잔”명흑유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sup>18</sup> 그러므로 당시 어전사차에 사용된 건요 흑유완이 모두 “공어”나 “진잔”명이 있는 것이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은 채 이 기록들을 토대로 직접 “공어”·“진잔”명흑유완의 제작시기를 추론한 것은, 엄격히 말한다면, 논리적 비약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sup>19</sup>

실사 당시 어전사차에 사용된 건요 흑유완이 모두 “공어”나 “진잔”명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비판의 여지가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사료(E)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할 수 있

16 [元]脫脫等撰, 『宋史』卷433 程大昌傳, 中華書局點校本(北京: 中華書局, 1977), pp.12858-12861.

17 [宋]程大昌撰, 앞의 책(1986), pp.68-69.

18 李民舉, 「建窯初論稿」, 『“迎接二十一世紀的中國考古學”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北京: 科學出版社, 1998), pp.332-334 참조.

19 이러한 비판은 풍선명의 견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 고문벽은 이 시의 내용을 근거로 철종대에는 御前에서 아직 건요의 토호잔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이 시는 단지 특정한 어전사차에 “동엽”이라는 다기를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을 알려줄 뿐이다. 그 시기에 궁정에서 건요의 흑유잔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말해준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뜻이다. 당시 궁정에서 가지고 있던 다양한 재질과 종류의 다기 가운데 이 어전사차에 문제의 “동엽”을 사용하였을 뿐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료(F)에 대한 해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고문벽은 어전사차에 건요 흑유완을 사용하지 않게 된 시점의 상한을 정대창이 중앙을 떠난 건도 6년(1170)으로 파악하였다. 하지만 그의 추론 과정을 살펴보면, 그가 왜 그렇게 파악하였는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료(F)를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어전사차에 건요 흑유완을 사용하지 않게 된 시점이 정대창이 『演繁露』를 편찬한 순희 8년(1181) 이전의 어느 때라는 점 정도라고 생각한다.

한편, 李民舉는 기형과 문양 및 釉·胎 등의 측면에서 “공어”·“진잔”명흑유완과 같은 특징을 가지는 건요의 흑유완들이 남송 중·후기의 무덤에서 출토된다고 주장하였다.<sup>20</sup> 그는 이러한 유형의 흑유완을 “공어”형으로 지칭하였는데, 그가 대표적인 예로 든 것은 江蘇省 江浦縣 張同之墓(1195), 江西省 婺源縣 汪賡墓(1200)와 程氏墓(1211),<sup>21</sup> 江西省 吉水縣 張重四墓(1254) 등에서 출토된 흑유완들이다. 이것들은 모두 寧宗~理宗時期(1195~1264)의 紀年墓에서 출토되었지만, 그는 이러한 “공어”형의 흑유완이 그보다 이른 孝宗時期(1162~1188)에 출현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요컨대, 그는 “공어”형 흑유완의 제작시기를 대략 효종~이종시기(1162~1264)로 파악한 것이다.<sup>22</sup> 그는 “공어”·“진잔”명흑유완의 제작시기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공어”형의 흑유완과 같은 시기의 산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민거의 주장은 당시까지 “공어”·“진잔”명흑유완의 제작시기로 남송 중기 이전을 지목한 견해가 주류였다는 점 등에서 볼 때 매우 대담하고 흥미롭다. 하지만 그의 견해에도 몇 가지 의문이 있다. 특히 흑유완의 실물자료에 대한 해석의 측면에서 그러하다. 먼저, 왕갱묘에서 출토된 흑유완의 產地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이민거는 이것을 건요산으로 파악하였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그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sup>23</sup> 이 무덤의 발굴보고자도 이것을 건요가 아닌, 吉州窯産으로 파악하였다.<sup>24</sup> 다음으로 지적할 것은 장중사묘에서 출토된 흑유완에 대한 문제이다. 이 흑유완은 복부가 활처럼 휘고(弧腹) 구연이 밖으로 말린 듯한 束口碗으로, 높이는 5.0cm, 구경은 10.8cm, 저경은 4.1cm이

20 李民舉, 앞의 논문(1998), p.333.

21 정씨묘는 程實睦墓를 가리킨다. 詹永萱·詹祥生, 「婺源兩座宋代紀年墓的瓷器」, 『中國陶瓷』 7(1982), pp.105-107 참조.

22 李民舉, 앞의 논문(1998), pp.333-334.

23 桂冠, 「建窯黑釉瓷器研究」, 吉林大學碩士學位論文(2013), pp.12-17; 葉文程·林忠淦, 『建窯』(南昌: 江西美術出版社, 2016), pp.44-47.

24 詹永萱·詹祥生, 앞의 논문(1982), p.105.



다.<sup>25</sup> 이민저는 이것을 “공어”형으로 파악하였다. 하지만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어”나 “진잔”명흑유완의 대부분이 속구완이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이러한 기형의 속구완은 보이지 않는다.<sup>26</sup> 양자는 서로 다른 유형의 속구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장동지묘나 정씨묘 출토의 흑유완에 대한 이해도 의문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두 무덤의 출토품은 모두 “공어”·“진잔”명흑유완과 마찬가지로 운두가 비교적 높고 구연이 밖으로 완만하게 벌어진 속구완이다. 하지만 두 무덤 출토품과 “공어”·“진잔”명흑유완을 자세히 비교해보면, 속구의 형태나 위치, 그리고 구체적인 운두의 높낮이 등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다.<sup>27</sup> 즉, 전자의 경우 구연의 0.5~1.0cm가량 아래에서 속구가 분명하게 이루어져 있는 반면, 후자는 구연의 바로 아래에서 살짝 속구가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전자가 후자에 비해 운두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과연 양자를 동일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인 것이다.

鄧宏文은 이제까지 언급한 연구자들과는 색다른 방식으로 “공어”·“진잔”명흑유완의 제작시기를 추정하였다.<sup>28</sup> 그가 각별히 주목한 것은 “進琰”에 보이는 “琰”자의 用法이다. 그는 송대의 여러 문헌 기록에 보이는 “琰”과 “蠶”의 용례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북송시기에는 찻잔을 가리킬 때는 “琰”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지 않고 “蠶”이라는 글자를 사용한 반면, 술잔을 지칭할 때는 “蠶”과 “琰”을 혼용하였으며, 남송시기에 접어들어서 비로소 찻잔을 가리킬 때 “琰”이라는 글자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공어”·“진잔”명흑유완은 찻잔으로 사용된 것이 분명하므로, 그가 “琰”자가 새겨지거나 찍힌 이들 흑유완을 남송시기의 기물로 파악하는 것은 정해진 귀결이다.

등평문의 견해는 매우 흥미롭고, 아울러 “공어”·“진잔”명흑유완의 제작시기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였다는 점 등에서 주목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의 견해에도 몇 가지 의문이 있다. 먼저 지적할 것은 그의 논의는 엄밀하게 말하면 “진잔”명흑유완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陳顯求가 주장한 바와 같이, “공어”명흑유완이 “진잔”명흑유완보다 제작시기에 있어서 앞선다면,<sup>29</sup> 전자의 제작시기가 북송시기로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설령 “공어”명흑유완과 “진잔”명흑유완이 동일한 시기에 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다. 북송시기의 기록에도 찻잔을 지칭할 때 “琰”자를 쓴 예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인용한 바 있는 채경이 정화 2년에 쓴 「太清樓特燕記」가 그것이다. 여기에서도 찻잔으로 쓰인 건요 흑유완을 “建溪毫琰”으로 칭한 것이다[사료(D) 참조]. 비록 이 기록이 남송시기에 王明清이撰한 『揮麈餘話』에 실려 있지

25 陳定榮, 「江西吉水紀年宋墓出土文物」, 『文物』2(1987), p.66.

26 이희관, 「建窯의 “供御”·“進琰”銘黑釉碗에 대한 기초적 검토」, 『야외고고학』36(2019a), pp.24-29.

27 장동지묘나 정씨묘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13세기 초기의 흑유속구완과 “공어”·“진잔”명흑유완의 기형적 특징에 대해서는 이희관, 「建窯의 “新窯”銘黑釉碗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야외고고학』40(2021), p.101; 앞의 논문(2019a), pp.25-29 참조.

28 鄧宏文, 「吉州窯和建窯黑瓷的研究」, 『湖南考古輯刊』1(1999), p.306.

29 陳顯求 等, 「大型御用建盞」, 『景德鎮陶瓷學院學報』16-1(1995), p.37.

만,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공어”·“진잔”명흑유완의 제작시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문헌 기록이나 실물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볼 때, 문헌기록을 토대로 한 접근은 커다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송대의 문헌기록에 “공어”·“진잔”명흑유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궁정의 어전사차 등에서 사용한 건요 흑유완과 관련된 기록에 주목하였지만, 궁정에서 건요 흑유완을 사용하였다는 것과 “공어”·“진잔”명흑유완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별개의 일이다. 궁정에서 사용한 건요 흑유완이 모두 “공어”나 “진잔”명흑유완이었다는 근거는 전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당시의 문헌기록에서 “공어”·“진잔”명흑유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찾아내지 못하는 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는 힘들다고 생각된다.

현시점에서 “공어”·“진잔”명흑유완의 제작시기를 밝히는 작업은 실물자료를 분석하는 일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紀年墓에서 “공어”나 “진잔”명흑유완이 출토된 예는 보고된 바가 없다. 건요요지는 여러 차례 발굴되었으며, 이 가운데 노화평요지와 대로후문산요지 등에서 “공어”·“진잔”명흑유완의 실물자료가 출토되었다.<sup>30</sup> 하지만 보고문에는 그것들이 출토되었다는 사실만이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을 뿐, 그 밖의 퇴적관계 등을 포함한 출토상황에 대해서는 거의 서술되어 있지 않다. 요지에서의 “공어”·“진잔”명흑유완의 출토상황을 통해 그 제작시기에 대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水尾嵐遺址나 蘆花坪遺址 등에서도 “공어”나 “진잔”명흑유완이 출토되었지만,<sup>31</sup> 그러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공어”·“진잔”명흑유완의 제작시기를 밝히는 데 있어서 가장 긴요한 일은 器形의 측면에서 “공어”·“진잔”명흑유완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는 일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그것이 같은 유형의 건요 흑유완의 전개과정에서 시간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건요 흑유완의 기형적 변화의 모습이 그다지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느 연구자는 심지어 건요 흑유완은 시기에 따른 기형적인 변화가 거의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sup>32</sup>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민저가 “공어”·“진잔”명흑유완이 남송 중·후기의 건요 흑유완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한 것도 그러한 원인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공어”·“진잔”명흑유완을 포함한 건요 흑유완의 기형적 특징과 그 변화의 양상을 좀 더 미시적인 시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0 福建省博物館 等, 「福建建陽蘆花坪窯址發掘簡報」, 『中國古代窯址調查發掘報告集』(北京: 文物出版社, 1984), pp.138-141;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等(李德金 執筆), 「福建建陽縣水吉北宋建窯遺址發掘簡報」, 『考古』 12(1990), p.10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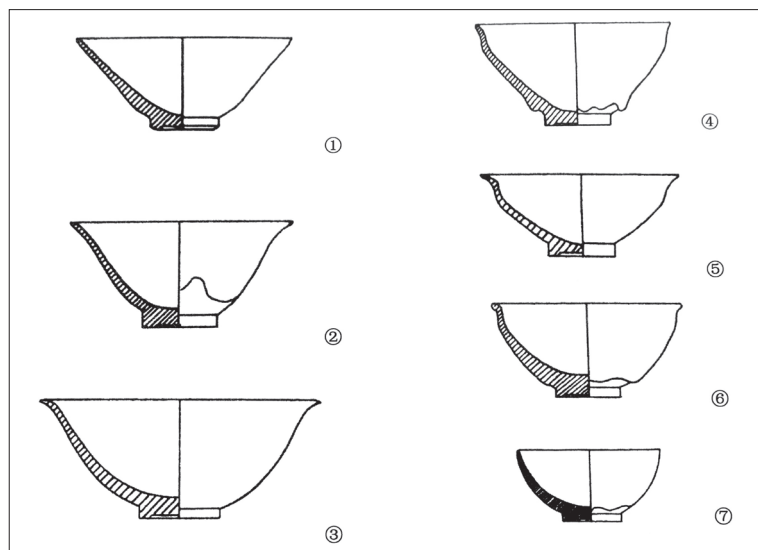
31 水尾嵐遺址와 蘆花坪遺址에 대해서는 이희관, 앞의 논문(2019a), pp.18-23 참조.

32 曾凡, 「關於建窯的研究」, 『唐物天目—福建省建窯出土天目と日本傳世の天目—』(京都: 茶道資料館, 1994), p.267.

### Ⅲ. “供御”·“進饒”銘黑釉碗의 器形的 특징

건요 흑유완의 기형적 특징과 그 변화 양상을 잘 보여주는 요소 가운데 하나는 口部의 형태이다. 이것들은 구부의 형태에 따라 敞口碗·撇口碗·束口碗·斂口碗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창구완은 삿갓을 엮어놓은 형태이다(도 2-①). 별구완은 구부가 밖으로 벌어진 형태로, 腹部가 곧게 벌어지거나 완만하게 휜 부류(Ⅰ형, 도 2-②)와 활처럼 휜 부류(Ⅱ형, 도 2-③)가 있다. 속구완은 구연의 아랫부분이 안으로 좁아든 형태이다. 운두가 비교적 높고 구연이 밖으로 완만하게 벌어진 부류와(Ⅰ형, 도 2-④), 운두가 낮고 구연이 밖으로 급하고 예리하게 벌어진 부류(Ⅱ형, 도 2-⑤), 복부가 활처럼 휘고 구연이 밖으로 말린 듯한 부류(Ⅲ형, 도 2-⑥)가 있다. 斂口碗은 구부가 약간 內彎한 형태로, 건요의 흑유완 가운데 크기가 가장 작으며(도 2-⑦), 건요요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기형이다.

건요 흑유완의 기형적 특징과 그 변화 양상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요소는 운두의 높낮이라고 판단된다. 운두는 그 높이 대 구경의 비율(높이/구경)로 파악할 수 있는데, 높이/구경의 값이 클수록 운두가 높다. <표 1>은 “공어”·“진잔”명흑유완의 실물자료 가운데 구부의 형태와 운두의 높낮이를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선별하여 그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표 1).<sup>33</sup>



도 2. 건요 흑유완의 여러 유형

33 현재까지 건요요지나 여러 유지에서 출토된 “공어”·“진잔”명흑유완의 실물자료는 적지 않다. 특히 건요요지에 인접한 池中村에 있는 水尾嵐遺址에서 다량 출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희관, 앞의 논문(2019a), p.31]. 그렇지만 이것들은 구부 등이 결실되어 전체적인 기형을 복원하기가 힘든 것들이 대부분이다. 본고에서는 이것들 가운데 전체적인 기형을 복원할 수 있는 것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표본을 선별하였다. 그 밖에 여러 박물관이나 개인들이 完整한 “공어”·“진잔”명흑유완 전제품들을 여러 점 소장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후대의 방제품들이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것들 가운데에서는 필자가 직접 조사하거나 실견하여 송대에 건요에서 제작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것들만을 선별의 대상으로 삼았다.

표 1. “공어”·“진잔”명흑유완

표본 번호	명문	출토지	유형	규격 (cm)	윤두 (높이/ 구경)	도판		소장처
GW①	供御	蘆花坪遺址	속구완 I형	고: 5.8 구경: 12.9 저경: 4.1	0.45			南平市 建陽區 博物館
GW②	供御	蘆花坪遺址	속구완 I형	고: 6.2 구경: 12.4 저경: 4.2	0.5			
GW③	供御	蘆花坪遺址	속구완 I형	고: 6.3 구경: 12.7 저경: 4.3	0.5			
GW④	供御	蘆花坪遺址	속구완 I형	고: 5.8 구경: 12.3 저경: 4.3	0.47			
GW⑤	供御	蘆花坪遺址	속구완 I형	고: 5.9 구경: 12.2 저경: 4.2	0.48			
GW⑥	供御	蘆花坪遺址	속구완 I형	고: 6.0 구경: 12.3 저경: 4.2	0.49			
GW⑦	供御	蘆花坪遺址	속구완 I형	고: 6.1 구경: 12.6 저경: 4.2	0.48			
GW⑧	供御	蘆花坪遺址	속구완 I형	고: 6.3 구경: 12.5 저경: 4.0	0.5			

표본 번호	명문	출토지	유형	규격 (cm)	운두 (높이/ 구경)	도판	소장처
GW⑨	供御	蘆花坪遺址	속구완 I 형	고: 6.3 구경: 12.8 저경: 4.1	0.49		南平市 建陽區 博物館
GW⑩	供御	蘆花坪遺址	속구완 I 형	고: 6.4 구경: 13.0 저경: 4.2	0.49		
GW⑪	供御		속구완 I 형	고: 6.0 구경: 12.0 저경: 4.0	0.5		
GW⑫	供御		별구완 II 형				池中村 羅網 선생
GW⑬	供御		별구완 II 형	고: 7.8 구경: 18.8 저경: 6.8	0.41		한성 백제 박물관
JZ①	進琖		속구완 I 형	고: 6.1 구경: 12.6 저경: 4.0	0.48		上海博 物館
JZ②	進琖	水尾嵐遺址	속구완 I 형	고: 6.0 구경: 12.0 저경: 4.3	0.5		福建博 物院

※ GW⑪ 도면의 出典: 王永平 主編, 『玄之妙—福建宋元黑釉瓷』, (福州: 福建美術出版社, 2016) p.32.

GW⑬ 도면의 作圖: 朴俊炯 선생

JZ② 도면의 出典: 曾凡, 『“建盞”的新發現』, 『文物』 10(1990), p.96.



필자가 선별한 표본은 모두 15점으로, “공어”명흑유완이 13점이고 “진잔”명흑유완이 2점이다. 건요요지나 그 주변 遺址에서의 출토품을 조사해 보아도 전자의 수량이 후자보다 훨씬 많다.

건요에서는 다양한 기형의 흑유완을 제작하였지만, “공어”명이나 “진잔”명이 이들 모든 기형의 흑유완에서 보편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창구완과 염구완에서는 “공어”나 “진잔”명이 있는 예들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sup>34</sup> I 형 별구완과 II 형 · III 형 속구완의 경우도 그러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결국 “공어” · “진잔”명흑유완은 거의 다 II 형 별구완이나 I 형 속구완에 속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셈인데, 필자가 선별한 <표 1>의 표본들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 15점의 표본 가운데 13점이 I 형 흑유속구완이고, 나머지 2점이 II 형 흑유별구완이다. I 형 흑유속구완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데, 이제까지 알려진 “공어” · “진잔”명흑유완의 상황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한편, <표 1>에 제시된 13점의 I 형 흑유속구완 표본(GW①~⑪, JZ① · ②) 가운데 “공어”명흑유완은 11점이고, “진잔”명흑유완은 2점이다. 전자의 비율이 훨씬 높는데, 건요요지나 그 밖의 유지에서의 출토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모두 높이는 6cm 전후이고, 구경은 12~13cm가량이며, 저경은 4cm가량이다.

13점의 표본 모두 구부가 짧게 外反되어 있다. 얼핏 보면 별구완의 일종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구부의 외반이 시작된 지점인 구연으로부터 0.3~0.5cm가량 아래에 속구가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외반된 구부의 폭도 0.3~0.5cm가량이 되는 셈인데, 이는 건요의 전형적인 I 형 흑유속구완의 경우보다 좁은 편이다. 어떤 것은 속구가 비교적 뚜렷하게 이루어진 반면 어떤 것은 미미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후자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별구완으로 오해하기가 쉽다. GW④ · ⑥ · ⑦ · ⑧ · ⑨ · ⑩과 JZ①이 전자에 속한다면, GW① · ② · ③ · ⑤ · ⑪과 JZ②는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외반된 구부 측사면의 경사각은 대략 50° 전후이다. 구부의 형태의 측면에서 볼 때, I 형 속구완의 경우 “공어”명흑유완과 “진잔”명흑유완 사이에서 의미 있는 차이는 간취되지 않는다.

<표 1>의 II 형 별구완 표본 2점(GW⑫ · ⑬)은 모두 건요의 흑유완 가운데 대형에 속한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어”나 “진잔”명이 있는 II 형 흑유별구완은 거의 다 대형이다. 이 두 점의 표본은 모두 “공어”명이 있다. 필자는 “진잔”명이 있는 흑유별구완은 실견한 바가 없는데, 福建博物院 文物考古研究所의 栗建安 전 소장에게 따르면, 大路後門山窯址에서 “진잔”명이 있는 흑유별구완 잔편이 출토된 바가 있다고 한다. 아마도 “진잔”명흑유별구완은 극소량만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34 “공어”나 “진잔”명이 있는 염구완의 실례는 확인된 바가 없다. 그리고 창구완으로서는 요지에서 출토되었다는 “공어”명이 있는 1점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謝道華, 『中國古陶瓷標本—福建建窯』(廣州: 嶺南美術出版社, 2003), p.42].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창구완보다는 I 형 별구완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과연 송대의 “공어”명흑유완인지 자세히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GW⑫와 GW⑬은 모두 Ⅱ형 별구완의 범주에 속하지만, 구부의 형태의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전자는 구부가 크게 외반된 반면, 후자는 구부가 구연으로부터 0.3cm가량 아래에서 짧게 외반되어 기형적으로 확연히 구분된다. 그러므로 양자를 구분하여 전자와 같은 부류는 Ⅱ-①형 별구완으로, 후자와 같은 부류는 Ⅱ-②형 별구완으로 칭하기로 한다. GW⑫의 구부는 건요의 Ⅱ-①형 흑유별구완에서 흔히 보이는 형태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후문산요지에서 출토되었다는 “진잔”명흑유별구완도 이 Ⅱ-①형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에 GW⑬과 같은 Ⅱ-②형 별구완은 “공어”나 “진잔”명이 없는 일반적인 건요의 흑유별구완에서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거의 다 “공어”·“진잔”명흑유완에서만 확인된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대형의 Ⅱ-②형 흑유별구완은 南平市 建陽區의 周建平宋代建窯贗品館에도 2점이 소장되어 있으며,<sup>35</sup> 陳顯求의 논문에도 福建南平星辰天目陶瓷研究所 소장의 1점이 소개되어 있다.<sup>36</sup> 두 점 모두 “공어”명이 있다. 이러한 기형의 대형 흑유완의 경우, 그 구부의 형태만 놓고 보면, Ⅰ형 흑유속구완의 그것과 근사하다. 특히 속구가 미미하게 이루어진 Ⅰ형 “공어”·“진잔”명흑유속구완의 구부의 형태와 Ⅱ-②형 “공어”·“진잔”명흑유별구완의 그것은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로 흡사하다. Ⅱ형 흑유별구완의 경우, “공어”명이나 “진잔”명이 있는 실물자료가 매우 드문 편이기 때문에 양자가 구부의 형태의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는 파악하기 힘들다.

필자는 건요요지의 서쪽에 인접해 있는 池中村의 水尾嵐遺址(도 3)에서 흑유완의 구부편들을 다수 수습하였는데, 그 형태가 앞서 살펴본 “공어”·“진잔”명흑유완들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도 4). 필자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이곳에는 “공어”·“진잔”명흑유완의 瓷片堆積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sup>37</sup> 이 점들로 미루어볼 때, 이것들도 거의 다 “공어”·“진잔”명이 있는 Ⅰ형 흑유속구완이나 Ⅱ형 흑유별구완의 구부편들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공어”·“진잔”명이 있는 13점의 Ⅰ형 흑유속구완 표본은 그 높이/구경의 값이 모두 0.5 이하이다. 운두가 가장 낮은 GW①의 경우는 0.45에 불과하다. 전형적인 건요의 Ⅰ형 흑유속구완은 높이/구경의 값이 거의 다 0.5 이상이며, 0.6 전후인 것들도 많다.<sup>38</sup> “공어”·“진잔”명이 있는 Ⅰ형 흑유속구완이 건요의 전형적인 Ⅰ형 흑유속구완보다 상대적으로 운두가 낮다는 이야기가 된다. 운두의 측면에서 볼 때, “공어”명흑유완과 “진잔”명흑유완 사이에서 의미 있는 차이는 눈에 띄지 않는다.

“공어”명이 있는 2점의 Ⅱ형 흑유별구완 가운데 GW⑫의 경우는 유감스럽게도 정확한 높이와 구경을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높이/구경의 값도 알 수가 없다. GW⑬의 경우는 높이/구경의 값이

35 이희관, 「건요(建窯)와 “공어”·“진잔”명흑유완(“供御”·“進殘”銘黑釉碗) 그리고 수미람유지(水尾嵐遺址)—건요(建窯) 조사기(調査記) (2)」, 『아시아 陶磁文化 研究』 2(2019b), pp.103-105 <表1>의 ZH①과 ZH② 표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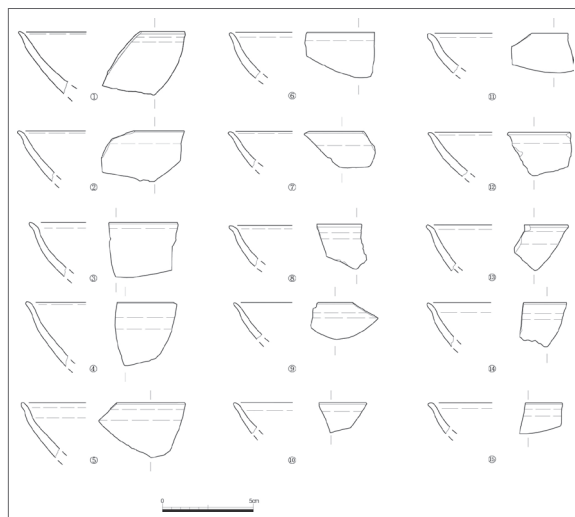
36 陳顯求 等, 앞의 논문(1995), p.38.

37 이희관, 앞의 논문(2019a), pp.31-34.

38 茶道資料館 編, 『唐物天目—福建省建窯出土天目と日本傳世の天目—』(京都: 茶道資料館, 1994), 圖3·4·10·14·15 및 pp.230-232 참조.



도 3. 水尾遺址



도 4. 水尾遺址 수습 건요 흑유완 구부편들(權赫周 선생 作圖)

0.41로 운두가 낮은 편이다. 앞서 언급한 福建南平星辰天目陶瓷研究所 소장의 “공어”명흑유별구완은 높이가 8.0cm이고 구경이  $21.2 \pm 0.2\text{cm}$ 로,<sup>39</sup> 높이/구경의 값이 약 0.38가량이다. 하지만 II-①형 흑유별구완의 경우는 운두를 파악할 수 있는 “공어”명의 표본이 거의 없고, II-②형 흑유별구완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표본 자체가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공어”·“진잔”명이 있는 II형 별구완의 운두와 그 밖의 전형적인 건요의 II형 흑유별구완의 그것은 비교하기가 힘들다. 이 유형의 “공어”명흑유완과 “진잔”명흑유완 사이에 운두의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파악하기 힘들다.

#### IV. “供御”銘黑釉碗과 “進殘”銘黑釉碗의 시기적 선후관계 문제

“공어”명흑유완과 “진잔”명흑유완은 동일한 시기에 제작된 것일까, 아니면 서로 다른 시기에 제작된 것일까?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시기적으로 어느 쪽이 앞서고 어느 쪽이 뒤진 것일까? 이러한 양자의 시기적 선후관계 문제를 푸는 것이 이 장에서의 과제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어”명흑유완과 “진잔”명흑유완은 기형적인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거의 간취되지 않는다. 문양이나 釉 및 胎土 등의 측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양자의 차이가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것은 명문을 표시한 방식 정도일 것이다.

“공어”·“진잔”명흑유완은 굽 안바닥에 縱으로 “공어” 또는 “진잔”이 正자로 음각되어 있거나 찍

39 陳顯求 等, 앞의 논문(1995), p.38.

혀 있다. “공어”명흑유완의 경우는 거의 예외 없이 음각된 반면, “진잔”명흑유완의 경우는 거의 다 찍혀 있다. 왜 동일한 요장에서 공어용으로 제작된 흑유완에 서로 다른 명문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시된 것일까? 혹 이러한 차이에서 양자의 시기적 선후관계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공어”나 “진잔”은 그러한 표시를 한 흑유완이 공어용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을 터이지만,<sup>40</sup> 당시 다른 지방에서도 그러한 표시를 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복건지방만의 독특한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표시를 한 것은 복건지방의 공어품 가운데 흑유완만이 아니었다. 이 지방에서 공어한 茶餅에도 “進”이나 “進茶”라고 표시한 예가 확인되었다.<sup>41</sup> 이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 복건지방에서 황제에게 상공한 물품에 일률적으로 그러한 표시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이 궁정의 뜻에 따른 것인지, 이 지방에서의 上供을 책임진 福建路轉運使나 그 휘하의 지방관 등이 그렇게 하도록 했는지는 잘 알 수 없다.<sup>42</sup>

“供御”는 말 그대로 황제에게 바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進”은 “供”과 마찬가지로 바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황제에게 특정 물품을 바친 내용을 서술할 때 당송시기에 가장 흔히 쓴 글자가 바로 “進”이었다.<sup>43</sup> 게다가 “진잔”명이 표시된 흑유완이 공어용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을 떠올리면, 문제의 “進”은 그 의미상 “供御”와 일치한다고 보아도 좋다. 다만 “진잔”의 경우는 공어한 물품의 이름—“錢”—이 구체적으로 표시된 것이 “공어”의 경우와 다르다. 하지만 “공어”명이 표시된 물품이 찻잔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건요의 특정 흑유완에 표시된 “공어”와 “진잔”은 사실상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글자로 표시하였다는 점이 다를 뿐인 셈이다.

이와 같이 동일한 요장에서 공어용으로 제작한 흑유완에 서로 다른 명문—“공어”와 “진잔”—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시한 것과 관련하여, 陳顯求是 “공어”명흑유완을 제작하던 시기에는 그 명문을 도공들이 직접 새기는 방식을 취했다가 수요량을 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자 “진잔”명흑유완을 제작하는 시기에 이르러 좀 더 진보된 인장으로 찍는 기법을 고안해 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sup>44</sup> 결과

40 연구자들은 거의 다 “공어”·“진잔”명흑유완이 공어용으로 제작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단 鄧宏文은 건요 흑유완에 관하여 언급한 송대의 문헌에 그러한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그것들이 모두 공어용이었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다[鄧宏文, 앞의 논문(1999), p.306].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것들 가운데 일부는 일반 상품용이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셈이다. 물론 “공어”·“진잔”명흑유완 가운데 일부가 어떤 경로로 일반에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은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문제는 그것이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것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점에서 그의 견해는 수긍하기 힘들다.

41 李民舉, 앞의 논문(1998), pp.333-334.

42 필자는 舊稿에서 “공어”·“진잔”을 표시한 것이 궁정의 의도에 따른 것이었으리라고 추측한 바가 있다[李喜寬, 「여요의 성립과 그 의의」, 『皇帝와 瓷器—宋代官窯研究』(坡州: 景仁文化社, 2016), p.75; 「康津 沙堂里窯場 瓷器製作의 實狀과 特質—沙堂里窯場の 性格에 대한 比較史的 接近」, 『해양문화재』 11(2018), pp.139-140쪽]. 이제 그러한 추측을 유보하고자 한다.

43 厲祖浩, 「唐五代越窯文獻資料考察」, 『東方博物』 43(2012), pp.89-97; 「宋越窯文獻資料考察」, 『東方博物』 46(2013), pp.61-69 참조.

44 陳顯求 等, 앞의 논문(1995), p.37.

적으로 그는 “공어”명흑유완과 “진잔”명흑유완이 서로 다른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이해한 셈이다. 하지만 鄧宏文은 “공어”나 “진잔”명이 공어용의 흑유완에 표시되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전제 자체를 부정한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그는 “공어”와 “진잔”이 흑유완의 품질의 높고 낮음을 구분한 標識라고 주장한다.<sup>45</sup>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공어”명흑유완과 “진잔”명흑유완은 같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서, 전자는 품질이 높은 부류이고, 후자는 그것보다 품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류라고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진현구의 견해는 “공어”명흑유완과 “진잔”명흑유완의 시기적 선후관계 문제를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거론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사적 의의를 지닌다. 다만 명문을 표시한 방식이 양자의 시기적 선후관계를 판별하는 데 얼마나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제작시기가 달랐을 가능성 자체는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등평문은 특정 흑유완에 “공어”나 “진잔”명을 표시한 것이 단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sup>46</sup> 그의 견해에 따르면, 건요의 도공들이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연히 일반 상품용 흑유완에 “공어”나 “진잔”명을 표시하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셈이다. 과연 실제로 있어서 그러하였을까? 당시 황제 권력의 절대성 등에 견주어 볼 때, 이는 실로 큰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공어”와 “진잔”이 흑유완의 품질의 높고 낮음을 구분한 標識일 것이라는 주장도 그러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공어”명흑유완과 “진잔”명흑유완 사이에서 품질적 차이는 거의 간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필자는 “공어”명흑유완과 “진잔”명흑유완 사이에 제작시기에 있어서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진현구의 견해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점은 “공어”명흑유완과 “진잔”명흑유완의 출토상황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지리라 믿는다.

“공어”나 “진잔”명흑유완은 거의 다 건요요지(埴 5)와 그 주변의 몇몇 유지에서 출토되었다.<sup>47</sup> 후자의 대표적인 곳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水尾嵐遺址와 後井村에 있는 蘆花坪遺址인데(埴 6), 이 두 유지에서 출토된 “공어”나 “진잔”명흑유완은 수량에 있어서 오히려 건요요지의 그것들 능가할지도 모른다.<sup>48</sup> 두 유지는 모두 평지에 있으며, 그 주위에서 요도구 등과 같은 요업폐기물도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sup>49</sup> 이러한 곳에서 그와 같이 다량의 “공어”나 “진잔”명흑유완이 출토된 것이 꽤 흥미롭다. 필자는 이러한 현상이 “공어”·“진잔”명흑유완의 燒成 및 選品 방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sup>50</sup>

45 鄧宏文, 앞의 논문(1999), p.306.

46 鄧宏文, 앞의 논문(1999), p.306.

47 “공어”·“진잔”명흑유완의 출토현황에 대해서는 이희관, 앞의 논문(2019a), pp.12-24 참조.

48 이희관, 앞의 논문(2019a), pp.30-32.

49 이희관, 앞의 논문(2019a), pp.18-23.

50 “공어”·“진잔”명흑유완의 소성 및 選品の 방식에 관해서는 이희관, 앞의 논문(2019a), pp.29-34; 「건요“공어”·“진잔”명

“공어”·“진잔”명흑유완은 공어용의 기물이지만, 건요의 별도 요장에서 소성된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모두 일반적인 건요요장의 용요에서 일반 상품용 흑유완과 함께 소성되었다. “공어”·“진잔”명흑유완은 出窯 직후 그곳에서 선품이 이루어졌는데(제1차 선품), 낙선품은 용요 주변에 폐기되었다. 건요요지에서 일반 요업폐기물과 함께 섞인 채로 출토된 “공어”·“진잔”명흑유완은 모두 이 과정에서 폐기된 것들이다. 제1차 선품 과정을 통과한 “공어”·“진잔”명흑유완은 각 요장별로 요장 주위의 별도의 장소로 옮겨 제2차 선품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노화평요의 경우는 이 요지(제2구역)의 남쪽 가장자리에 인접해 있는, 後井村과 池中村을 잇는 小路의 남쪽 평지 등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노화평요의 제2차 선품장 가운데 하나가 바로 노화평유지라고 생각한다.<sup>51</sup>

이렇게 제2차 선품 과정을 통과한 각 요장의 “공어”·“진잔”명흑유완은 건요요장으로부터 1~2 km 이상 떨어져 있는 오늘날의 지중촌 수미람에 집적된 후, 福建路轉運使의 책임 아래 建州나 甌寧縣의 관리들의 최종 선품을 거쳐 합격품들은 바로 인접한 南浦溪의 선착장에서 선적되어 송의 궁정에 조달되고, 낙선품들은 그곳에 폐기되어 퇴적을 형성하였다고 판단된다. 이곳이 수미람유지이다. 이제까지 수미람에서는 그렇게 폐기된 “공어”나 “진잔”명흑유완편들이 다수 출토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건요요지와 수미람유지의 경우, “공어”명흑유완과 “진잔”명흑유완의 출토상황에서 양자가 제작 시기에 있어서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밝힐 수 있는 단서는 찾기 힘들다. 하지만 노화평유지의 경우는 그것들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노화평유지에서의 출토상황을 소상히 알고 있는 촌민들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2006년에 100 점을 전후한 수량의 흑유완이 출토되었다.<sup>52</sup> 노화평유지의 출토품에는 잔편들뿐만 아니라 28점에



도 5. 건요요지 분포도



도 6. 龍花坪遺址

흑유완(建窯“供御”·“進殘”銘黑釉碗)과 그 지평(地平)을 넘어—건요(建窯) 조사기(調査記) (3), 『아시아 陶磁文化 研究』 3(2020), pp.173-180 참조.

51 노화평유지의 성격에 관해서는 이희관, 앞의 논문(2020), pp.178-180 참조.

52 노화평유지에서의 건요 흑유완의 출토상황에 대해서는 이희관, 앞의 논문(2019a), pp.22-23; 앞의 논문(2020), pp.173-178 참조.



이르는 완정품이거나 그것에 가까운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건요요지나 수미람유지에서 출토된 “공어”·“진잔”명흑유완이 거의 다 殘片인 점에 견주어보면 이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것들이 모두 “공어”명흑유완이라는 점이다(도 7). 이 유지의 출토품에서 “진잔”명흑유완이 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노화평요에서 “공어”명흑유완뿐만 아니라 “진잔”명흑유완도 소성되었다는 것은 발굴을 통하여 이미 밝혀졌다.<sup>53</sup> 만약 노화평유지에서 출토된 “공어”명흑유완이 소성될 당시에 같은 요장에서 “진잔”명흑유완도 소성되었다면, 그러한 공어용 흑유완의 2차 선품이 이루어진 이곳에서 “공어”명흑유완만 출토되고 “진잔”명흑유완은 한 점도 출토되지 않은 현상은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들다. 실제로 있어서 그러하였다면, 다수의 “공어”명흑유완이 이곳에서 이루어진 2차 선품과정에서 낙선되어 폐기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진잔”명흑유완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폐기된 것들이 있었으리라고 보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 그러므로 노화평요에서 “공어”명흑유완을 제작하던 시기에 “진잔”명흑유완은 제작되지 않았을 공산이 지극히 크다고 생각한다.<sup>54</sup> 요컨대, 노화평유지의 출토상황으로 미루어보아도 “공어”명흑유완과 “진잔”명흑유완은 서로 다른 시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게 되면, “공어”명흑유완과 “진잔”명흑유완 가운데 제작시기에 있어서 어느 쪽이 앞서고 어느 쪽이 뒤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게 된다. 다음 기록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 7. “供御”銘黑釉碗, 蘆花坪遺址 출토

53 福建省博物館 等, 앞의 논문(1984), p.141.

54 이 점에서 보면, 노화평유지는 사실상 “공어”명흑유완이 제작하던 시기의 제2차 선품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주위 어딘가에 “진잔”명흑유완이 제작되던 시기의 또 다른 제2차 선품장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G) 吳綾縫囊染菊水, 蠻砂塗印題進字, 淳熙錫貢新水芽, 天珍誤落黃茅地.<sup>55</sup>

위 기록은 남송의 문인 楊萬里의 시 「謝木輜之舍人分送講筵賜茶」의 한 대목인데, 이 내용을 통하여 복건지방에서 淳熙年間(1174~1189)에 上供한 茶餅이 황룡 주머니에 포장되었으며 그 위에 주홍색의 인장이 찍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시에는 그 글자가 “進”자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 찍혀 있던 글자는, 이민거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進茶”였을 가능성도 있다.<sup>56</sup>

다병과 같은 복건지방의 상공물에 이와 같이 “進”자를 이용하여 표시하던 시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기간이 순희연간 이전의 어느 때부터 그 이후의 어느 때까지였을 것이라는 점이다. 문제의 다병과 같이 “進”자를 이용하여 공어용임을 표시한 “진잔”명흑유완도 이러한 시간적 범주 안에 있는 어느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의 논의에 따르면, “공어”명흑유완의 제작시기는 이러한 “진잔”명흑유완의 제작시기보다 앞서거나 뒤진다는 이야기가 된다. 과연 실제로 있어서는 어느 쪽이었을까? 순희연간이라는 시기는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만약 “공어”명흑유완이 “진잔”명흑유완보다 늦게 제작되었다면 그 시기는 순희연간 이후일 수밖에 없고, 그 반대로 “공어”명흑유완이 순희연간 이전에 제작되었다면 그것의 제작시기는 “진잔”명흑유완보다 앞설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건지방의 경우 순희연간에는 “進茶”나 “進璫”과 같이 “進”자를 이용하여 해당 물품이 공어용임을 표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대장의 『演繁露』에 따르면 순희 8년(1181) 이전의 어느 때부터 이미 어전사차에서 건요 흑유완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사료(F) 참조]. 그러므로 “공어”명흑유완이 순희연간 이후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하여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추론에 큰 무리가 없다면, “공어”명흑유완의 제작시기가 “진잔”명흑유완의 그것보다 앞선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V. “供御”·“進璫”銘黑釉碗의 제작시기에 대한 탐색

우리는 앞장에서 “공어”·“진잔”명흑유완의 기형적 특징을 살펴보고, 아울러 “공어”명흑유완과 “진잔”명흑유완의 선후관계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토대로 “공어”·“진잔”명흑유완의 구체적인 제작시기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공어”·“진잔”명흑유완이 거의 다 Ⅱ형 별구완이나 Ⅰ형 속구완에 속한다는 점은 이미 언급하였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전자에 속하는 “공어”·“진잔”명흑유완은 그 표본 자체가 매우 적기 때문에

55 [宋]楊萬里 撰, 『誠齋集』卷17 「謝木輜之舍人分送講筵賜茶」, 文淵閣四庫全書本, 『景印文淵閣四庫全書』 제1160책(臺北:臺灣商務印書館, 1986), p.178.

56 李民舉, 앞의 논문(1998), pp.333-334.

“공어”·“진잔”명흑유완의 제작시기를 밝히는 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공어”·“진잔”명흑유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후자, 즉 I 형 속구완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한다.

앞서 논의한 바에 따르면, “공어”·“진잔”명이 있는 I 형 흑유속구완의 경우, 구부가 짧게 外反되어 있으며, 외반된 구부 측사면의 경사각은 대략 50° 전후이다. 그리고 구연으로부터 0.3~0.5cm가량 아래에 속구가 이루어져 있다. 어떤 것은 속구가 비교적 뚜렷하게 이루어진 반면 어떤 것은 미미하게 이루어져 있다. 또한 건요의 I 형 흑유속구완 가운데 운두가 비교적 낮아서, 높이/구경의 값이 거의 예외 없이 0.5 이하이다. 이러한 기형적 특징을 가진 “공어”·“진잔”명의 I 형 흑유속구완은 건요의 전체 I 형 흑유속구완의 전개과정에서 시간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일까?

건요요지에서는 여러 차례 발굴을 통하여 적지 않은 양의 I 형 흑유속구완 표본이 수습되었다. 하지만 I 형 흑유속구완의 기형적 변화과정을 추적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퇴적층과 출토자료에 대한 해석과 분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중국과 일본의 여러 遺址에서 출토된 흑유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경우 분묘 등의 유지에서 적지 않은 건요산 I 형 흑유속구완의 출토 예가 알려져 있지만,<sup>57</sup> 紀年遺址에서 출토된 예는 매우 드문 편이다. 그러한 유지 가운데 하나가 江蘇省 江浦縣 張同之墓(1195)이다.<sup>58</sup> 이 묘에서는 두 점의 흑유완이 출토되었는데, 그 가운데 한 점이 I 형 속구완이다(도 8). 나머지 한 점은 기형에 대한 설명이 소략할 뿐만 아니라 사진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다. I 형 속구완의 경우, 胎土와 釉 모두 건요 흑유완의 특징을 갖추고 있으며, 내외면에 兔毫紋이 발현되어 있다. 그리고 약간 외반된 구연으로부터 1cm가량 아래에 속구가 이루어져 있다. 외반된 구부 측사면의 경사각은 일정하지 않지만 비교적 큰 편이다. 대략 70° 전후로 추정된다. 기물의 높이는 7.1cm, 구경은 12.0cm, 저경은 4.3cm이며, 높이/구경의 값은 약 0.59이다.

江西省 清江縣 南宋開禧元年墓(1205)에서도 I 형 흑유속구완이 한 점 출토되었는데, 건요산이 분명하다(도 9).<sup>59</sup> 태토는 흑색이고, 기벽이 비교적 두꺼우며, 내면에는 은백색의 토호문이 드러나 있다. 기물의 높이는 6.8cm, 구경은 12.0cm, 저경은 4.0cm이며, 높이/구경의 값은 0.57이다. 보고자는 이것을 敞口碗으로 분류하였지만, 이는 착오로 보인다. 구연으로부터 0.5cm가량 아래에 뚜렷하게 속구가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반된 구부 측사면의 경사각은 대략 60~70°이다.

江西省 婺源縣 程寶睦墓(1211)에서 출토된 흑유완은 I 형 속구완으로서는 비교적 큰 편으로, 높

57 劉濤, 『宋遼金紀年瓷器』(北京: 文物出版社, 2004), p.128; 桂冠, 앞의 논문(2013), pp.12-17; 葉文程·林忠淦, 앞의 책(2016), pp.44-49.

58 南京市博物館, 『江浦黃悅嶺南宋張同之夫婦墓』, 『文物』4(1973), pp.59-62; 張柏 主編, 『中國出土瓷器全集』7 江蘇·上海(北京: 科學出版社, 2008), p.133.

59 黃冬梅, 『清江南宋紀年墓出土的瓷器』, 『江西歷史文物』1 (1987), p.10; 張柏 主編, 『中國出土瓷器全集』14 江西(北京: 科學出版社, 2008), p.53.

이는 7.3cm, 구경은 12.6cm, 저경은 4.0cm이며, 높이/구경의 값은 0.58이다(도 10).<sup>60</sup> 보고자는 다소 막연하게 복건의 요장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하였지만, 기형이나 태토 및 유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건요산이 분명하다. 구부는 약간 외반되었으며, 구연으로 0.5~1.0cm가량 아래에 속구가 이루어져 있다. 구연부는 銀製의 테를 씌웠다(銀釦). 외반된 구부의 경사각은 60~70도가량으로 추정된다.

이것들과 유사한 크기와 형태의 I형 흑유속구완은 일본의 하카타유지(博多遺址)에서도 적지 않게 출토되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하카타(博多)는 중세의 무역항으로서 중국제품을 중심으로 한 다양하고 많은 무역도자가 출토된 곳으로 유명하다. 이 가운데에는 복건지방의 여러 窯場에서 생산된 흑유완도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森木朝子의 연구에 따르면, 하카타유지의 경우 앞서 언급한 중국의 세 기년묘 출토품과 같은 기형적 특징을 가지는 I형 흑유속구완은 12세기 후반~13세기 전



도 8. 黑釉束口碗(Ⅰ형), 江浦縣 張同之墓(1195) 출토



도 9. 黑釉束口碗(Ⅰ형), 清江縣 南宋開禧元年墓(1205)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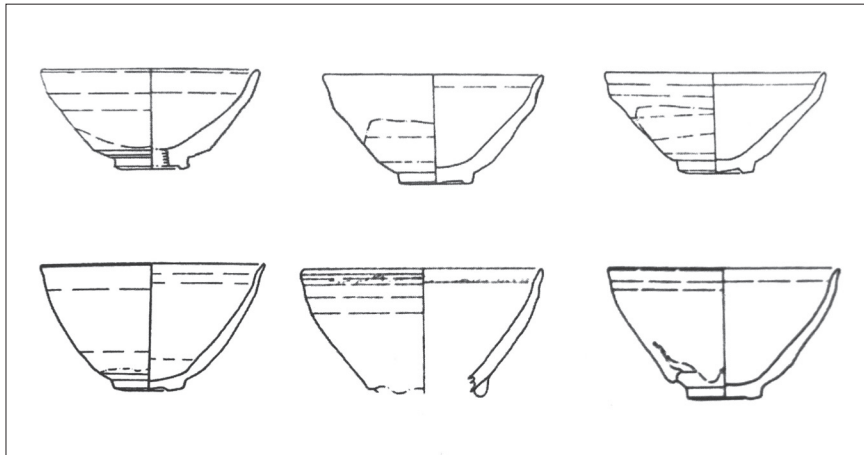


도 10. 黑釉束口碗(Ⅰ형), 婺源縣 程實睦墓(1211) 출토

60 詹永萱·詹祥生, 앞의 논문(1982), pp.106-107.

반의 유지에서 출토된다(도 11).<sup>61</sup> 복건지방의 흑유완이 거의 시간적 격차 없이 하카타에 유입된 셈이다. 이것들에는 건요산을 비롯하여 복건의 여러 요장에서 건요 흑유완을 방제한 것들이 섞여 있는데, 건요산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그 가운데 전체적인 기형의 복원이 가능한 한 점은 구연의 아래에서 속구가 뚜렷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높이는 6.7cm, 구경은 12.6cm, 저경은 4.0cm로, 높이/구경의 값이 0.5를 넘는다.<sup>62</sup>

이상에서 살펴본 중국의 세 기년묘와 일본의 하카타유지에서 출토된 건요 흑유완은 모두 우리가 흔히 “建窯”으로 부르는 전형적인 건요의 I 형 흑유속구완이다. 일본에 전세되어오는 대부분의 건요산 I 형 흑유속구완도 이 부류에 속한다. 어떤 연구자들은 “공어”·“진잔”명의 I 형 흑유속구완도 이것들과 같은 부류로서 동일한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sup>63</sup> 하지만 앞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양자 사이에는 기형적인 측면에서 크고 작은 차이가 있다. 특히 “공어”·“진잔”명의 I 형 흑유속구완은 장동지묘 출토품과 같은 전형적인 건요의 I 형 흑유속구완과 달리 구연의 바로 아래에서 속구가 이루어졌으며, 속구 현상도 그것보다 덜 분명하다. 그리고 구부 측사면의 경사각도 50° 전후로 전형적인 건요의 I 형 흑유속구완의 경우(60°~70°)보다 작은 편이다. 운두도 상대적으로 낮다. 건요의 I 형 흑유속구완이 출현하여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점 속구가 뚜렷하게 이루어지고 운두가 상대적으로 높아져 간다는 관점에서 보면,<sup>64</sup> “공어”·“진잔”명의 I 형 흑유속구완은 장동지묘 출토품 등보다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도 11. 12세기 후반~13세기 전반의 博多遺蹟에서 출토된 I 형 黑釉束口碗

61 森本朝子が IV-①類로 분류한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森本朝子, 「博多遺跡群出土天目」, 『唐物天目—福建省建窯出土天目と日本傳世の天目—』(京都: 茶道資料館, 1994), p.197 참조.

62 森本朝子が 제시한 유물번호 72의 표본이다. 森本朝子, 앞의 논문(1994), p.197 및 p.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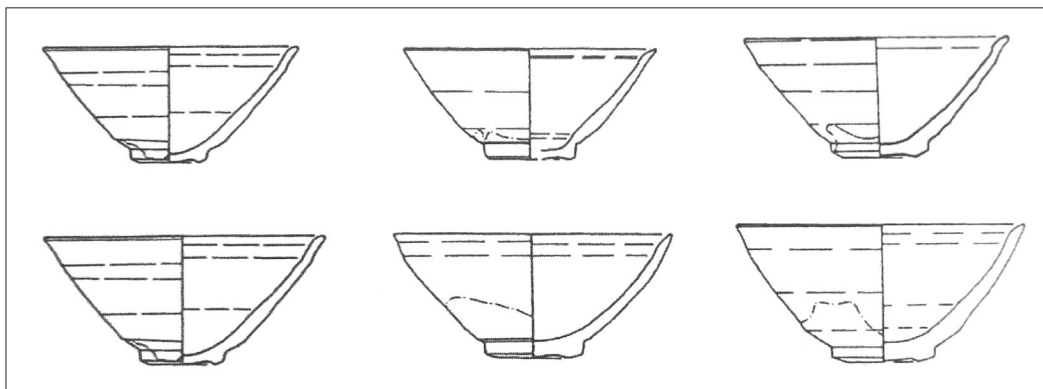
63 李民舉, 앞의 논문(1998), p.333; 劉濤, 앞의 책(2004), pp.122-123.

64 이희관, 앞의 논문(2021), pp.100-103.

제까지 발굴된 중국의 여러 紀年遺址나 그것에 준하는 유지의 출토품 가운데 “공어”·“진잔”명의 I 형 흑유속구완과 같은 부류의 건요 속구완은 찾을 수가 없다. 이 대목에서 12세기 전기의 하카타유지에서 출토된 一群의 I 형 흑유속구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도 12).<sup>65</sup>

이 부류에는 건요산을 비롯하여 복건지방의 여러 요장에서 건요 흑유완을 방제한 것들이 섞여 있는데, 앞서 살펴본 하카타의 12세기 후반~13세기 전반경 유지에서 출토된 I 형 흑유속구완과는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것들은 전체적으로 기벽이 얇고 구연이 外反되었으며, 구연의 바로 아래에서 살짝 속구가 이루어져 있다.<sup>66</sup> 어떤 것은 속구가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撇口碗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운두가 12세기 후반~13세기 전반경 유지에서 출토된 것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서 높이/구경의 값이 거의 예외 없이 0.5 미만이다.<sup>67</sup> 이러한 기형적 특징은 “공어”·“진잔”명이 있는 I 형 흑유속구완의 그것과 놀랍도록 흡사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카타유지의 흑유완 출토품 가운데 이러한 기형적 특징을 가진 부류는 12세기 전기의 유지에서 출토되었다. 그리고 당시 건요를 비롯한 복건지방의 흑유완은 거의 시간적 격차 없이 하카타에 유입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그것들과 거의 동일한 기형적 특징을 가진 “공어”·“진잔”명이 있는 I 형 흑유속구완의 제작시기가 12세기 전기를 벗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공어”·“진잔”명흑유완의 또 다른 부류, 즉 같은 명문이 있는 II 형 흑유별구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요컨대, “공어”·“진잔”명흑유완은 12세기 전기에 제작되었으리라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



도 12. 12세기 전기의 博多遺蹟에서 출토된 I 형 黑釉束口碗

65 森本朝子, 앞의 논문(1994), p.196.

66 森本朝子が III-①류로 분류한 것들이 이것이다. 森本朝子, 위의 논문(1994), p.196.

67 森本朝子は 이러한 부류 가운데 기물의 높이/구경의 값이 2/3을 전후한 운두가 높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는데[森本朝子, 위의 논문(1994), p.196], 이것들은 I 형 흑유속구완과는 다른 부류의 것들이라고 판단된다.



## Ⅵ. 나머지말—남아 있는 몇 가지 과제

본고는 “공어”·“진잔”명흑유완의 제작시기를 밝히는 것이 건요에서 흑유완을 공어한 시기를 규명하는 일을 넘어 건요의 전개과정 등을 이해하는 데에 핵심적인 과제가 된다는 문제의식 아래,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그 결과 “공어”명흑유완과 “진잔”명흑유완의 제작시기가 12세기 전기를 벗어나지 않으며, 전자가 후자보다 앞선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12세기 전기는 건요의 I형 흑유속구완이 출현한 것으로 여겨지는 시기이다.<sup>68</sup> 이것이 발전하여 뒤에 우리가 흔히 “건잔”으로 부르는 전형적인 I형 흑유속구완에 이르게 된다. 공교롭게도 “공어”·“진잔”명의 I형 흑유속구완의 제작시기와 건요에서 I형 흑유속구완이 출현한 시기가 모두 12세기 전기의 범위 안에 있는 셈이다. “공어”·“진잔”명이 있는 I형 흑유속구완의 제작과 건요에서의 I형 흑유속구완의 출현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단지 건요에서 I형 흑유속구완이 출현하여 제작되던 초기에 같은 기형의 “공어”·“진잔”명흑유완이 제작된 것일 뿐일까? 혹 그와 정반대로 “공어”·“진잔”명의 I형 흑유속구완을 제작하기 시작하면서 건요에서 I형 흑유속구완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이른바 “건잔” 출현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차후 깊이 있게 논의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공어”명흑유완과 “진잔”명흑유완 가운데 제작시기에 있어서 전자가 앞서고 후자가 뒤진다는 것은 이것들이 제작되던 기간의 어느 시점에 공어용임을 나타내는 표지가 “공어”에서 “진잔”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공어”와 “진잔”이라는 두 표지가 사실상 같은 의미이지만, 이러한 현상은 당시 건요 흑유완의 공어와 관련된 환경 등에 무슨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12세기 전기가 반쯤 지난 시점에 북송정권이 붕괴되었다는 점이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게 된다. 북송정권의 붕괴를 전후한 시기의 “공어”·“진잔”명흑유완의 공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는 찾기 힘들다. 다만 “공어”·“진잔”명흑유완이 전적으로 이 정권의 정점에 있던 황제에게 공어하기 위하여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보면, 전자가 후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만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북송정권이 붕괴된 후 곧 남송정권이 성립되었지만, 金에게 쫓겨 紹興 8년(1138)에 臨安府(오늘날의 杭州)에 정식으로 定都할 때까지 이곳저곳을 전전하였다. 이 점을 고려하면, 이 시기에 과연 건요의 흑유완이 제대로 공어되었을지도 잘 알 수 없는 일이다. 북송정권이 붕괴된 후 일정 기간 동안 건요 흑유완의 공어에 공백기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더 나아가 이 공백기를 거치면서 건요의 공어용 흑유완의 표지가 “공어”에서 “진잔”으로 바뀐 것은 아닐까? 이러한 문제들 역시 아직 거친 생각의 범주에 머물러 있지만, 차후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68 이희관, 앞의 논문(2021), p.102.



## 참고문헌

### 【1차 문헌】

- [宋]耐得翁 撰,『都城紀勝』,『叢書集成續編』제52책,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1994.
- [宋]蘇軾 撰,『東坡全集』,文淵閣四庫全書本,『景印文淵閣四庫全書』제1107책,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6.
- [宋]楊萬里 撰,『誠齋集』,文淵閣四庫全書本,『景印文淵閣四庫全書』제1160책,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6.
- [宋]程大昌 撰,『演繁露』,文淵閣四庫全書本,『景印文淵閣四庫全書』제852책,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6.
- [宋]蔡襄 撰,『茶錄』,『中國古代茶書集成』, 上海: 上海文化出版社, 2010.
- [宋]王明清 撰,『揮塵餘話』,文淵閣四庫全書本,『景印文淵閣四庫全書』제1038책,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6.
- [宋]徽宗 撰,『大觀茶論』,『中國古代茶書集成』, 上海: 上海文化出版社, 2010.
- [宋] 佚名 撰,『宣和遺事』,上海中華書局據士禮居刻本校刊本,『四部備要』제45책, 北京: 中華書局, 1989.
- [元]脫脫 等 撰,『宋史』,中華書局點校本, 北京: 中華書局, 1977.
- [清]寂園叟 撰,『匋雅』,書貴山房重刊本,『中國陶瓷名著匯編』, 北京: 中國書店, 1991.
- [民國]詹宣猷 等 撰,『建甌縣志』,民國十八年本, 臺北: 成文出版社, 1967.

### 【단행본】

- 羅筱玉,『宋元講史話本研究』復旦大學博士學位論文, 2005.
- 茶道資料館 編,『唐物天目—福建省建窯出土天目と日本傳世の天目—』,京都: 茶道資料館, 1994.
- 謝道華,『中國古陶瓷標本—福建建窯』,廣州: 嶺南美術出版社, 2003.
- 葉文程·林忠淦,『建窯』,南昌: 江西美術出版社, 2016.
- 王永平 主編,『玄之妙—福建宋元黑釉瓷』,福州: 福建美術出版社, 2016.
- 劉濤,『宋遼金紀年瓷器』,北京: 文物出版社, 2004.
- 張柏 主編,『中國出土瓷器全集』7 江蘇·上海, 北京: 科學出版社, 2008.
- 張柏 主編,『中國出土瓷器全集』14 江西, 北京: 科學出版社, 2008.

### 【논문】

- 李喜寬,『여요의 성립과 그 의의』,『皇帝와 瓷器—宋代官窯研究』,坡州: 景仁文化社, 2016.
- 李喜寬,『康津 沙堂里窯場 瓷器製作의 實狀과 特質—沙堂里窯場의 性格에 대한 比較史的 接近』,『해양문화재』11, 2018.
- 이희관,『建窯의 “供御”·“進窺”銘黑釉碗에 대한 기초적 검토』,『야외고고학』36, 2019a.
- 이희관,『건요(建窯)와 “공어”·“진간”명흑유완(“供御”·“進窺”銘黑釉碗) 그리고 수미람유지(水尾嵐遺址)—건요(建窯) 조사기(調査記) (2)』,『아시아 陶磁文化 研究』2, 2019b.
- 이희관,『건요“공어”·“진간”명흑유완(建窯“供御”·“進窺”銘黑釉碗)과 그 지평(地平)을 넘어—건요(建窯) 조사기(調査記) (3)』,『아시아 陶磁文化 研究』3, 2020.
- 이희관,『建窯의 “新窯”銘黑釉碗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야외고고학』40, 2021.

- 桂冠,「建窯黑釉瓷器研究」吉林大學碩士學位論文, 2013.
- 顧文璧,「建窯“供御”、“進饒”的年代《宣和遺事》“建溪異毫淺”正誤,『東南文化』1, 1986.
- 南京市博物館,「江浦黃悅嶺南宋張同之夫婦墓」,『文物』4, 1973.
- 鄧宏文,「吉州窯和建窯黑瓷的研究」,『湖南考古輯刊』1, 1999.
- 福建省博物館 等,「福建建陽蓋花坪窯址發掘簡報」,『中國古代窯址調查發掘報告集』,北京:文物出版社, 1984.
- 森本朝子,「博多遺跡群出土天目」,『唐物天目—福建省建窯出土天目と日本傳世の天目—』,京都:茶道資料館, 1994.
- 厲祖浩,「唐五代越窯文獻資料考察」,『東方博物』43, 2012.
- 厲祖浩,「宋越窯文獻資料考察」,『東方博物』46, 2013.
- 李民舉,「建窯初論稿」,『“迎接二十一世紀的中國考古學”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北京:科學出版社, 1998.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等(李德金 執筆),「福建建陽縣水吉北宋建窯遺址發掘簡報」,『考古』12, 1990.
- 曾凡,「關於建窯的研究」,『唐物天目—福建省建窯出土天目と日本傳世の天目—』,京都:茶道資料館, 1994.
- 陳定榮,「江西吉水紀年宋墓出土文物」,『文物』2, 1987.
- 陳顯求 等,「大型御用建盞」,『景德鎮陶瓷學院學報』16-1, 1995.
- 詹永萱·詹祥生,「婺源兩座宋代紀年墓的瓷器」,『中國陶瓷』7, 1982.
- 馮先銘,「從文獻看唐宋以來飲茶風尚及陶瓷茶具的演變」,『文物』1, 1963.
- 馮先銘,「新中國陶瓷考古的主要收穫」,『文物』9, 1965.
- 馮先銘,「宋代黑釉瓷器」,『馮先銘中國古陶瓷論文集』,香港:紫禁城出版社·兩木出版社, 1987.
- 黃冬梅,「清江南宋紀年墓出土的瓷器」,『江西歷史文物』1, 1987.

## A Study on the date of the black glazed bowls with “*Gongyu* (供御)” or “*Jinzhan* (進琰)” of Jian ware

Lee, Heegwan<sup>\*</sup>

This study specifically examined the date of the black glazed bowls marked with “*Gongyu* (供御)” or “*Jinzhan* (進琰)” of Jian ware, one of the key research topics related to the bowl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Jian Kiln produced various shapes of black glazed bowls, but almost all of the inscriptions of “*Gongyu* (供御)” or “*Jinzhan* (進琰)” are found only in two certain type bowls: Type I, the *Shukou* type bowls (束口碗), or Type II, the *Piekou* type bowls (撇口碗). Of these, there are significantly more of the former in existence. For Type I bowls marked with “*Gongyu* (供御)” or “*Jinzhan* (進琰)”, the mouth of the bowls is slightly evaginated outwards, and the inclination angle of the side slope is about 50°. The shape feature, *Shukou* (束口) is formed which is slightly indented around the bowl about 0.3~0.5cm below the mouth of bowl. And the height of the bowls is relatively low compared to other Type I black glazed bowls produced by Jian Kiln, so the height divided by the diameter is 0.5 or less. There is little difference in shape between the black glazed bowls marked with “*Gongyu* (供御)” and those with “*Jinzhan* (進琰)”. However,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excavation situation of both type bowls, the former is considered to be ahead of the latter in terms of production date.

On the other hand, the black glazed bowls of Jian ware, which have the same shape features as the Type I bowls marked with “*Gongyu* (供御)” or “*Jinzhan* (進琰)” have not been found in the tombs dating from the end of the 12th to the beginning of the 13th century from which typical Jian kiln black glazed bowls of the same type were excavated. For the Hakata site (博多遺址) in Japan, the black glazed bowls with such a shape feature were excavated from early 12th century sites, rather than from the late 12th to early 13th century sites at which the typical black glazed bowls of Jian kiln were found. Considering that the black glazed bowls from Fujian province were imported into Hakata with almost no time gap, it is very unlikely that the production time of Type I black glazed bowls marked with “*Gongyu* (供御)” or “*Jinzhan* (進琰)” will deviate from the early 12th century. In conclusion, it is considered that the black glazed bowls marked with “*Gongyu* (供御)” or “*Jinzhan* (進琰)” of Jian ware were produced in the early 12th century.

Keywords: *Jian* kiln, the black glazed bowls marked with “*Gongyu* (供御)” or “*Jinzhan* (進琰)”,  
Date, *Shukou* type black glazed bowls (黑釉束口碗), *Luhuaping* site(蘆花坪遺址),  
*Hakata* site (博多遺址)

---

<sup>\*</sup> Independent Scholar

